

미워도 믿는다



KIA 타이거즈의 김진우가 주말 NC 다이노스의 홈경기에서 선발로 첫 출격한다. 사진은 지난 오기나와 스프링캠프에서 볼펜 피칭을 하는 모습.

KIA 김진우, 시범경기 후 주말 NC전 첫 출격...5선발 '마지막 기회'

KIA 타이거즈의 김진우가 마지막 기회를 얻는다. 사령탑 김기태 감독의 '미워도 다시 한번'이다.

시범경기에서 자취를 감췄던 KIA 투수 김진우가 25일 챔피언스필드에 다시 등장했다. 1군에 합류해 2017시즌 동행에 나서게 된 김진우는 주말 NC 다이노스와의 선발로 올 시즌 스타트를 끊을 예정이다.

든든한 두 축 헛타-양현종의 간재 속에 팻단이 성공적으로 한국무대에 안착했고, 인기영도 셋별로 자리하면서 KIA의 선발진은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마지막 남은 한 자리, 이번에는 김진우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김진우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유력한 4선발 후보였다. 긴 부상의 타널에서 벗어나 모처럼 스프링 캠프를 완주했고, 위력적인 공을 뿌리면서 선발 한 자리를 선점하는 것 같았다.

김기태 감독의 인내

부임 후 15경기 출장 그쳐

자기관리 아쉬움에 실망만

선발 테스트서도 전력 외

“부주의로 피해 주면 안돼”

그러나 지난 3월15일 두산 베어스와의 시범경기 시작 직전 열구리 염좌로 등판이 무산됐다. 또 한 번 김진우가 고비를 넘기지 못하자 김기태 감독의 상실감은 컸다.

김 감독 부임 이후 지난 2년 김진우는 15경기 출장에 그쳤다. 부임 첫째 체력테스트에서부터 탈락자가 되며 김 감독의 속을 태웠던 김진우는 중요한 순간마다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렸다. 지난 시즌에도 팔꿈

치 재활을 끝냈지만 부상으로 복귀가 무산됐다. 집에서 아이를 보다가 발가락 골절상을 당한 것이었다.

매번 자기 관리에서 아쉬움을 보였던 만큼 김 감독은 올 시즌에도 김진우의 부상에 대해 큰 실망을 했다. 김운동-홍건희-고효준-정동현 등이 5선발로 테스트를 치르는 동안에도 김진우는 전력 외 선수로 제외해두었다.

김진우는 착실하게 재활을 끝내고 2군 무대에서 복귀를 위한 준비를 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림을 끝내고 기회를 얻게 됐다. 하지만 조건은 있었다.

김 감독은 25일 “변답을 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라고 이야기했다. 겨우 내내 준비했던 동료, 스태프들에 대한 미안함을 가져야 한다.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부주의로 팀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의식 구조를 바꿔야 한다. 기회는 많

이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좀처럼 공개적으로 선수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 김 감독이지만 팀과 김진우를 위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힌 것이다.

기대와 실망의 반복 속에 시간을 흘려보냈던 김진우에게도 중요한 기회이자 순간이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며 김진우는 자신감을 보인다.

김진우는 “캠프에서 무리하게 살을 빼었다. 거의 10kg 가량을 줄였는데 그게 오히려 몸에 좋지 않았던 것 같다. 추운 날씨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 관리를 더 잘 해야 한다. 지금은 웨이트도 잘하고 좋았던 때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다. 열심히 준비했고 공이 나쁘지 않았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잘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벼랑 끝에 선 김진우가 선발진을 완성하는 마지막 카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안치홍(가운데)이 25일 삼성과의 홈경기에 앞서 '야구 꿈나무 인재 양성 1안타 1도루 후원 협약식'을 갖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김은영 본부장(오른쪽)과 밝은안과21병원 윤길중 원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안치홍, 꿈나무 후원 협약식

KIA 타이거즈 내야수 안치홍이 야구 꿈나무 후원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안치홍은 25일 광주 삼성전에 앞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김은영 본부장과 밝은안과21병원 윤길중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야구 꿈나무 인재 양성 1안타 1도루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안치홍은 올 시즌 1안타 및 1도루당 각각 2만원을 적립해 시즌 종료 후 어린이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다.

안치홍은 지난 2009년부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야구 꿈나무도 돕고, 나 스스로도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고 있다”며 “야구 꿈나무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단 지정병원인 밝은안과21병원도

안치홍의 뜻에 동참해 지난 2009년부터 안치홍의 성적에 따라 적립금을 조성, 시즌 종료 후 어린이재단에 전달하고 있다.

특히 안치홍은 각각 1만원을 적립하던 것을 지난 2013년부터 2만원으로 올려 적립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에서 군복무를 하던 2015~2016년에도 매년 200만원을 기부하며 후원의 끈을 놓지 않았다.

안치홍은 “후원 협약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야구 꿈나무도 돕고, 나 스스로도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고 있다”며 “야구 꿈나무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9~30일 광주서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

광주시 산악연맹 주최

국내 인공암벽 등반가들의 축제 '제28회 광주광역시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가 오는 29일과 30일 광주서 서구 삼구시민공원내 상무인공암벽장에서 열린다.

(사)대한산악연맹 광주시연맹(회장 임승진)이 주최하고 광주시와 광주시체육회, 광주 서구청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2017 코리아컵 시리즈 1차전'을 겸하고 있어 내로라하는 국내 스포츠클라이머들이 대거 참여한다.

남녀 초등부와 중학부, 고등부, 일반부 등 4개 중별로 나눠 치러지며, 부문별 입상자에게는 트로피와 상장 및 상품, 경기력향상비가 주어진다.

대회는 15m 높이의 인공암벽 코스를 사전 공개하지 않고 경기를 시작하면서 한 눈에 보고 오르는 온사이트 리딩(Onsight Leading) 방식의 난이도 경기로 치러진다. 홀드를 이용해 선수들의

오름짓을 어렵게 설계한 경기벽을 정해진 시간 내에 높이 올라간 선수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대한체육회 산악부문에 등록된 선수나 대한산악연맹 소속 각 시·도연맹의 가맹단체 회원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일반부는 만 16세 이상 가능하다. 참가비는 2만원.

29일 오후 2시 남녀 일반부 난이도 예선에 이어 30일에는 오전 9시부터 부문별 예선·결승 경기가 진행된다.

올 대회에는 국내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 200여명이 대거 참가한다.

임승진 회장은 “스포츠클라이밍은 손가락 한마디로 온몸을 지탱하면서 미묘한 몸의 밸런스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관중들도 손에 땀을 쥐는 관전의 재미를 맛볼 수 있다”며 “전국에서 온 선수들과 지역 산악인들이 함께 하는 우정과 화합의 한마당이 됐으면 한다”라고 관심을 당부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졌어도 괜찮아



류현진이 25일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해 역투하고 있다. 류현진은 6이닝 동안 5안타와 볼넷 하나만 내주고 삼진 3개를 곁들여 1실점으로 막았다. /연합뉴스

LA 류현진, 샌프란시스코전 6이닝 1실점에도 첫 승 불발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원수 투수 류현진이 시즌 네 번째 등판에서 호투하고도 또 첫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류현진은 25일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동안 5안타와 볼넷 하나만 내주고 삼진 3개를 곁들여 1실점으로 막았다.

류현진이 정규리그에서 퀄리티 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투구)를 달성한 것은 올 시즌 처음이자 2014년 9월 7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홈 경기(6.2이닝 2실점) 이후 961일 만이다. 포스트 시즌을 포함하면 2014년 10월 7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내셔널리그 디비전시

류현진의 인내

어깨·팔꿈치 수술·재활 후

931일만에 퀄리티 스타트

96개 투구·구속 150km

리즈 3차전(6이닝 1실점) 이후 931일 만이다.

왼쪽 어깨, 팔꿈치를 수술하고 재활을 거쳐 올해 다저스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한 류현진은 앞선 세 차례 선발 등판에서 평균자책점 5.87로 부진하며 모두 패전의 명예를 썼다.

하지만 이날은 제 몫을 하고도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또다시 패전투수가 돼 시즌 4패째를 안았다.

다저스 타선은 7회까지 2안타에 묶였다. 류현진은 0-1로 끌려가던 7회말 수비를 앞두고 교체됐고 다저스는 결국 샌프란시스코에 1-2로 무릎을 꿇었다.

류현진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4.64로 낮아졌다. 올 시즌 들어 처음으로 홈런도 맞지 않았다.

이날 96개의 공을 던진 류현진은 속구가 150km까지 나왔지만, 체인업입 구사 비율을 늘려 샌프란시스코 타선을 상대했다.

류현진은 자신에게 통산 타율 0.455로 무척 강했던 샌프란시스코 토타타 헌터 펜스와 1회 첫 대결에서 헛스윙 삼진을 잡으며 기분 좋게 시작했다. 하지만 브랜던 벨트에게 볼넷을 내준 뒤 에두아르도 누네스의 내야땅볼로 주자를 2루에 뒀다.

/연합뉴스

이어 버스터 포지에게 우전안타를 맞았지만, 우익수 아시엘 푸이그의 정확한 송구로 2루 주자를 홈에서 잡아 실점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2회 결국 먼저 점수를 내줬다. 첫타자 브랜던 크로퍼드에게 좌익수 쪽 2루타를 맞은 뒤 크리스티안 아로요의 2루 땅볼에 이은 조 패닉의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선제점을 빼앗겼다.

펜스에게 우전안타를 허용한 3회에도 주자를 2루까지 진투시켰지만 후속타자를 내야 땅볼로 유도해 실점을 막았다.

4회와 5회를 거푸 삼자범퇴로 넘긴 류현진은 6회 벨트와 포지에게 안타를 내줘 2사 1-3루에 처했다. 류현진은 크로퍼드를 3루수 뜬공으로 잡은 뒤 7회 애덤 리베라 토에게 공을 넘겼다.



밀키 테임즈



볼티모어 김현수

9, 10호 홈런

메이저리그 홈런 1위인 에릭 테임즈(밀워키 브루어스)가 시즌 9·10호 홈런을 연달아 쏘아 올렸다.

테임즈는 25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신시내티 레즈와 홈 경기에 2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 첫 두 타석에서 잇따라 홈런을 날렸다.

테임즈는 1회말 1사에서 맞이한 첫 타석에서 풀카운트 승부 끝에 신시내티 좌완 선발 아미르 가렛의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오른쪽 담장을 넘겼다. 4-1로 앞선 2회말 2사 1루에서는 밀어서 왼쪽 담장을 넘겨 투런 홈런을 기록했다.

테임즈는 지난 21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전에서 시즌 8호 포를 날린 뒤 3경기에서 11타수 1안타에 그쳤다. 하지만 신시내티전에서 시즌 9, 10호 홈런을 연달아 쳐내며 다시 살아나는 모양새다.

/연합뉴스

1호 홈런

김현수(29·볼티모어 오리올스)가 시즌 마수결이 홈런을 터뜨리고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다.

김현수는 25일 메이저리그 탬파베이 레이스와 홈 경기에 7번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1-3으로 뒤진 6회말 우중월 솔로 홈런을 쳤다.

김현수는 탬파베이 우완 선발 크리스 아처를 상대로 볼 카운트 2볼-1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92.6마일(약 149km) 포심 패스트볼을 잡아당겨 우중간 담장을 넘겼다. 올 시즌 10경기, 26타석 만에 나온 첫 홈런이다.

올 시즌 좌완 투수가 등장하면 출전을 하지 못하는 ‘플레툼 시스템’ 탓에 선발 기회를 많이 잡지 못했던 김현수는 전반기 좌완 투수를 상대로 23타석 만에 첫 안타를 때려낸 데 이어 이날 홈런으로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연합뉴스